논어 6편 옹야 27장 · 쓰기 연습

子曰：「中庸之爲德也，其至矣乎！民鮮久矣！」

이 장의 글자를 문장 순서대로 따라 쓴 뒤, 바로 아래 빈칸에 써 보세요.

子 曰 中 庸 之 爲 德 也 其 至 矣 乎

民 鮮 久 矣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